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인류평화 위협하는 군비경쟁 멈춰야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의 갑작스런 북중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미국과 한국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뉴스가 나왔다. 더욱이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한 32세의 젊은 지도자는 푸틴과의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다니 북핵 해결은 남북한과 미국간의 문제가 아님이 더욱 분명해졌다.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냉전시대 이후 남과 북으로 갈린 지구상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운명과 선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군비경쟁에 관한 한겨레 기사(2016.2.22)에서 인용

### 최신 무기 개발 노력

최근 재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1일 있었던 신년사에서 자국이 개발한 미사일을 천하무적이 라고 자랑하였다. 그는 차세대 신형 ICBM '사르마트'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어떤 MD로도 사르마트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극초음속(hypersonic)' 무기도 이미 개발했다고도 말했는데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마하 5(시속 6120km)의 속도로 움직여 전 세계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최신 무기로 강대국들이 개발했거나 개발을 서두르는 최첨단 무기이다.

### 군비경쟁 가열

이로 볼 때 국제사회에서 군사력 우위를 점하려는 군비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미중

러일 4강은 2018년 국방예산을 전년 보다 많이 늘렸다.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에 질세라 시진핑, 푸틴 또한 강한 군대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지난해 대비 8.1%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를 다시 증액한 것이다. 일본도 6년 연속 방위비를 늘리고 일본판 해병대를 확대 출범시키며 군사 강국의 꿈을 드러내고 있다. 서방에서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폴란드가 최근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등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패권 다툼을 위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 패권국가 다툼

지난 3월 영국에서 러시아 출신 스

파이 부녀가 독극물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후에는 러시아 정부가 있다고 의심되어 영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항의조치로 서방 28개국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다수를 추방했다. 러시아도 이에 질세라 관련국 외교관들을 보복 추방했다. 푸틴은 옛 소련의 영화를 꿈꾸며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패권 경쟁에 러시아도 곧 끼어들 모양이다.

### 이 세상을 하나로 엮을 철학 부재

패권경쟁을 둘러싼 군비경쟁은 평화와 인류 공영을 갈구하는 세계 인류의 바람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미일중러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며 인류애를 외치고 있지만 하는 것은 그와 반대다. 인류애를 발휘해야

만 하는 일이 지구촌에는 산적해 있다. 빈민국 기아문제, 난민문제, 온난화, 재앙적 수준의 전염병 대책, 환경오염 등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문제는 많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나 중국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에서 보듯이 각국은 자국 위주의 집단 이기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재 최강대국인 미국의 집단 이기적 정책은 타국까지 이에 동조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여 앞으로 지구촌은 점점 민족과 국가 단위로 쪼개져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은 없더라도 민족간, 종파간 국가간 작은 전쟁은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계적인 지도자라면 생각이 자국에만 미쳐서는 곤란하다.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류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사상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해결하여야 한다. 지구는 강대국만의 소유가 아니며 약소국을 비롯한 인류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지구촌의 운명에 나쁜 결정을 하는 경우 분연히 일어나 이에 항거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이걸 가능케 하고 있다. 평화와 행복은 사실 지도자 몇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한 몸 사상으로 인류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가 염원하던 평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한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 앞에 적이 어디 있고, 원수가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31>

### “내 고집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려야”

사람은 나라의 의식 때문에 죽는다고 나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면 죽지 않는 영생체로 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나를 버리는 노력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불질을 부여하는 사명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생활을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생체로 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나라의 것을 개뿔로 여기며, 종의 종살이를 해야 한다. 집에 가면 집안의 이웃을, 더러운 일을 내가 해야 한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추한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해야 나라는 마귀가 죽는 것이다.\*

## 통일대한민국, 정도령이 만드는 기적

조종령에서 발행하는 <조선신보>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결정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진행 등을 “파격적이며 사변적인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다. 조선이란 나라와 그 최고영도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라며 ‘북한 전문가’들의 자증을 촉구했다.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다. 상대는 생각도 없는데 가능성도 없는 일에 혼자 기대감을 품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사자성어 중에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거거나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꾀함”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아전인수(我田引水)와 맥이 통한다. 통일

조 한 명이 사라진다고, 남북한의 정상이 손잡고 미 중 일 러가 협조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 존재하는 인간세상의 하나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경제적 ‘대박’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의 흥행성공에 의해 완성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목적과 방법이 뚜렷한 극기승자 정도령의 전략에 의해 절망의 헬(Hell)조선이 희망의 영생복락(Paradise)조선으로 천지개벽하는 의인(義人)들의 신천신지(神天神地)다. 남북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의 체제로 통일되는 거증책임은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있다. 통일이란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원하는 통일이 가능하다’는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 통일, 인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

통일을 향한 첫걸음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모두의 공통된 깨달음에서부터다. ‘나’라는 주체의식, 유사 이래 죽음과 분쟁의 인간세상을 유지해온 마음의 뿌리, 인간의 자존심이 6천 년 전 에덴동산을 강탈한 선악과사건의 원흉인 마귀신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지함으로 통일은 시작된다. 천붕지타소사립(天崩地塌素砂立), 무너진 마음속 에덴동산의 기억을 되살려 ‘나’라는 자존심 마귀를 이김으로 전지전능의 능력을 회복하는 인신도성의 원시반본이 곧 통일이요, 영생과 하나됨의 성스러운 승지(勝地) 탈환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곳이 소사역곡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이다.\*

## 3지역 5개월만에 1등 복귀



정은경 3지역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등을 차지하였으며, 4지역이 역시 한 계단 내려 앉아 지역 3등을 차지하여, 3,4,5지역이 3강의 힘을 3월에도 이어갔다. 개인성적으로는 1등에 공용배승사, 2등에 이영애 권사, 3등에 고선희 권사가 각각 차지하였다. 3지역은 오랜만에 지역 1등과 구역 1등 그리고 개인 1등을 싹쓸이하며 3관왕에 올랐다. 윤봉수 회장은 “본부제단은 배관공사 하고 있는데 현금공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배관공사 감사현금이 들어왔다. 자발적으로 현금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 역사는 과연 하나님이 끌고 가는 역사임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영모님은 누구든 자신이 감람나무 원체라고 하셨다. 열매는 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법, 바로 승리제단의 역사가 감람나무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역사이다. 영모님의 계보를 이은 너무도 틀림없는 역사다. 이번 요절은 나라의 것을 개뿔로 여기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비결이라고 하였다. 집이나 제단, 어디에서나 추하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 해야 나라는 마귀가 죽는다. 각자나 자신과 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30구역(구역장: 공용배)
- 2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 3등: 50구역(구역장: 김두식)
- 개인 1등: 공용배 승사
- 2등: 이영애 권사
- 3등: 고선희 권사\*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종교입니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인생은 고행(苦海)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 14679 경기도 수원시 소사구 인곡로 206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